

한 만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Mark Rothko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심리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 전공

강 경 인

Mark Rothko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심리 연구

한 만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강 경 인

# 인 준 서

강경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색을 인간의 감정체계 뒤에 있는 무의식에 관한 추구로 여기며 정신적 영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수단으로 여겼던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1903-1970)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로 회화에서의 색채는 오직 자연의 색채를 빌려 재현하고 묘사되어 왔지만, 인간의 감정을 대변해주게 되었다.

색채와 인간 감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존 러스킨 (John Ruskin, 1819-1900)은 ‘완전한 오감과 올바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모두 색채를 즐긴다. 색채는 인간마음의 영원한 위안이며 즐거움이다. 그것은 최고의 창조물에 풍부히 주어진 것이며, 그 완성의 명백한 표식이며 확증인 것이다. 죽음과 밤, 그리고 모든 부정은 색채를 갖지 않는다.’<sup>1)</sup>라고 했다.

또한 색채는 회화에서 미술가들의 영혼과 육체를 색 속에 투입하여 색을 예술로 승화시켰으며 추상표현주의<sup>2)</sup>와 색면 추상의 발전적 고민을 통해서 시각적 비전을 나타내어 풍부한 회화세계를 펼쳤다. 즉, 색채는 단순히 외부에 대한 재현을 넘어서서 내면적인 표현에 있어서 변형을 가능하게 하며, 주관적 감정을 표현의 매체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듯 로스코의 작품에서도 색채는 색 자체로서 선이나 형태의 조형요소를 대신하고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형요소로서 그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표면적인 색의 감정전달을 목적으로 했던 로스코 작품의 색채심리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 서술하였다.

---

1) 허버드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유일주 역 (서울:을서문화사, 1982.), p.74

2) 추상표현주의 (抽象表現主義, abstract expressionism) 1940년대 말~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전개된 미술의 한 동향. 색채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암시하려는 회화양식

첫째, 작가의 생애를 시대별로 조사하고 그의 작품세계를 초기, 과도기, 원숙기 세 시대로 나누어 분류해 보고자 한다.

둘째, 색채가 인간의 심리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각 색채가 갖는 상징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셋째, 마크 로스코의 색채 사용의 특징을 색면추상이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연관 지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넷째, 최종적으로 그의 삶의 배경에서 작용한 심리가 각 작품의 색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색을 위주로 연구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로스코에게 있어서 색채의 의미는 무엇인지, 작품에 나타난 대비되는 배색의 효과와 60년대 말기 작품에 나타난 무채색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목 차

|                           |    |
|---------------------------|----|
| 논문개요                      | i  |
| I. 서론                     | 1  |
| II. 본론                    | 3  |
| 1. 마크 로스코의 생애와 작품세계       | 3  |
| 1) 마크 로스코의 생애             | 3  |
| 2) 마크 로스코의 작품세계           | 9  |
| a. 초기(1920-1930년대)        | 9  |
| b. 과도기(1940년대)            | 10 |
| c. 원숙기 (1950-1970년대)      | 12 |
| 2. 색채의 이론적 배경             | 15 |
| 1) 색채 심리의 이해              | 15 |
| 2) 색의 상징성                 | 18 |
| 3. 마크 로스코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와 심리 | 28 |
| 1)마크 로스코에게 있어서 색채의 의미     | 28 |
| 2)마크 로스코의 색채 사용 특징        | 30 |
| 3)마크 로스코의 작품의 색에 반영된 심리   | 33 |

III. 결론 ..... 42

작가 연보

참고문헌

도판

ABSTRACT

## I. 서론

2차 대전 후 많은 화가들이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회화의 추상적 표현양식은 새로운 활기를 얻는다. 그 새로운 활동의 대표적인 주자는 추상표현주의이며 이 조류는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sup>3)</sup>과 색면추상으로 전개되었다. 액션페인팅 화가들은 완결된 산물로서의 회화보다는 창조 행위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본래적 존재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색면추상화가들은 행위추상의 예견할 수 없는 행위의 과정보다는 회화라는 지고한 상징물을 설정하여 보다 순수하고 절대적 태도를 바탕으로 초월적 영역의 탐구에서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암시하려 했다.

이러한 색면추상의 중심 작가 중의 한 사람인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의 회화세계는 초기에 사실주의 경향인 누드와 풍경화의 습작기간을 거쳐 지하철 풍경을 작품으로 나타냈으며, 이 시기부터 형태를 의식한 형태적 회화와 초현실주의 영향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같은 고대 문화에 관심과 기독교 신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신화적 추상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중기에는 생태학적 형태, 오토매틱한 캘리그래피(calligraphy)가 대폭으로 사라지고 면적을 갖는 색면들이 수직과 수평으로 배치되어 불명료한 공간을 만들어 형상적 추상이 나타났으며, 후기에 자신의 작품과 보편적이고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한 신화정신간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에 모든 상징성과 문학적 관련성을 제거한 환원된 양식의 회화의 색면추상에 이르게 된다.

로스코의 색면추상은 색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시각의 순수성을 염원한 나머지 모든 표현적 수단과 요소를 배격하고 대상이나 형체에 존속되는 색채를 탈피하는 파격을 시도하였다. 그것을 단호하게 축소시키

---

3) 제2차 세계대전 후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 회화.

고 집약시킨 색, 그 자체의 힘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존재하게 하는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에게 끝없이 제기되어 오면서도 자각하지 못했던 조형성에 의거한 평면성이 적극 그 주제가 되었다.<sup>4)</sup>

이러한 로스코의 색면추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어떠한 배경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는지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그 시기 작가의 삶의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이후 계속 전개될 색면추상 작품에 나타난 색채에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해 볼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연구하기 위해 방법적으로는 첫째, 로스코의 생애와 그 시기에 나타난 작품을 시대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그리하여 로스코의 색면추상에 있어서 색채 사용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고 그의 색면추상 작품에 나타난 심리적 의미는 무엇인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

4) 마크 로드코(MARK ROTHKO) 색면 추상(COLOR - FIELD PAINTING)의 조형적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the Color:Field Pain...  
김상열, 동아대학교 [2002] p.54

## II. 본론

### 1. 마크 로스코의 생애와 작품세계

#### 1) Mark Rothko의 생애

1903년 9월 25일 마르쿠스 로스코비츠(Marcus Rothkowitz: 1903~1970)는 러시아 드빈스크(Dvinsk)에서 태어나, 13살 되던 해에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주해 오레건주 포틀랜드(Oregon State, Portland)로 정착한 후 이름을 마크 로스코(Mark Rothko)로 바꾼다.

1921년에는 예일(Yale)에 장학생으로 입학한다. 당시 아이비 리그대학(IVy League)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반유태주의 감정으로 인해 로스코는 학교 측으로부터 더 이상 장학금을 지불할 수 없으며 원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용자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명문대학들이 차별정책 때문에 뉴욕에 거주하던 우수한 학생들은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와 시티 칼리지(City College)로 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티칼리지를 가난한 학생들의 하버드대학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1920년대 당시 두 대학의 학생들 가운데 무려 80~90%가 유대인들이었다. 로스코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1923년에 대학을 자퇴하고 ‘여기저기 서성거리는 거지’가 되어 버렸다. 그는 뉴욕으로 가 봉제공장에서 천을 자르는 일을 했으며 1925년 22살 때 뉴욕의 미술학생연맹에서 그림을 배웠으며 뉴욕 예술가들이 기획하는 많은 활동에 참가했다. 5)

---

5) 마크 로스코 색면추상의 내재적 정신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지원(2004년 11월) p.36

로스코는 예일 대학을 중퇴하고, 1920년대 초반에 뉴욕으로 진로를 정한 후 그림을 계속 그렸다. 몇 가지 특이한 일들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특히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를 지나면서 캔버스와 종이 위에 그림을 엄청나게 쏟아냈다.

1925년 22살 때부터 뉴욕의 미술학생연맹(Art Student League)에서 그림을 배웠으며, 뉴욕 예술가들이 기획하는 많은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1920년대 후반부터 작품을 그려온 로스코는 대부분의 세월을 고투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로 살았고, 그의 독특한 색면추상(Color-Field Abstract)<sup>6)</sup> 스타일의 회화는 40년대 말에야 탄생된 양식이다.

1925년 예술학생연맹(ASL)에서 맥스 웨버와 함께 회화를 공부하였고 웨버의 영향을 받아 표현주의 양식으로 캔버스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1929년 브루클린의 유대인 센터 아카데미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932년 밀턴 에이버리와 아돌프 고틀리브를 만나 친구가 되기도 하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캠프에 갔다가 그의 만돌린 연주솜씨에 반한 에디스 사차(Edith Sachar)라는 여인을 만났다. 사차는 브루클린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었는데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사차는 로스코의 첫 아내가 되었다. 사차는 보석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수입이 넉넉했으므로 로스코에게도 자기와 같은 일을 하라고 종용했다. 그녀는 로스코와 그의 친구 예술가들의 그림을 야만적으로 공격하는 등 두 사

---

6)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일어난 미국 회화의 한 경향.

1950년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미술가인 바넷 뉴먼(Barnet Newman:1905~1970)·마크 로스코(Mark Rothko:1903~1970)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1912~1956)의 화면의 개념에 색채에 대한 관심을 결합시킨 작품을 제작하였다.

람의 인연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7)

1935년 창립된 독립미술가 집단 '더 텐'이 해체되는 1940년까지 '더 텐'을 통해서만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이시기부터 1930년 말까지의 그림은 구상으로, 무채색의 도시풍경, 초상화, 누드, 그리고 이상한 색채를 띤 드라마 같았다.

1940-41년 사이 즈음 로스코의 작품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당시 전위적인 유럽 현대 미술의 주요 사조였던 초현실주의의 일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환상적인 성격의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또한 머리가 여러 개이고 사지가 절단되는 등 심하게 왜곡된 인물을 그려서 인상적이고 불안을 조장하는 합성 인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는 철학적인 사상이 바탕 되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의 예술가들이 열광했던 신화의 세계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의식 세계를 로스코 역시 일정한 양식적 형태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코의 전기 작가인 제임스 브레슬린은 1940년경, 그 해의 대부분을 철학, 신화와 관련된 문학서적을 읽기 위해 그리기를 잠시 중단 했었다고 적고 있다. 브레슬린은 로스코가 1940년이나 1941년에 한 차례의 슬럼프를 겪었고 상당시간 동안 그림을 쉬었다고도 했다. 이는 로스코가 그림 그리기에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코는 슬럼프에 빠져 고투를 벌이면서 자신을 추스르지 못했다. 그는 작품을 거의 팔지 않았고, 전시회도 하지 않았으며, 공공사업촉진국 WPA<sup>8)</sup> 예술가로서 몇 년을 일했다. 첫 번째 결혼생활은 늘 위태로웠는데, 특히 그 당시는 최악이었다. 1940년 또는 1941년까지 별거가 이어

---

7) 마크 로스코 색면추상의 내재적 정신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지원(2004년 11월) p.40

8) WPA는 공황기의 많은 미술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 정부 기구의 대규모 벽화와 조형물을 제작케 함으로써 생존 때문에 제작을 포기해야 할 많은 미술가들이 이 정책을 통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후 미국 미술의 대표적 주자들인 잭슨폴록, 윌렘 데 쿠닝, 마더웰 등이 그들의 예술활동을 펼쳐 갈 수 있게 한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지고 있었다. 그들의 별거가 로스코를 침체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브레슬린은 지적했다. 그의 부인이던 사차는 당시 보석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로스코를 자신의 스튜디오에 밀어 넣고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방해했다.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은 1943년에 끝나 버렸다.

1937년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 계속되어온 로스코와 사차의 별거가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고, 이별로 고통을 받던 로스코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포틀랜드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렇듯 로스코의 고뇌는 집안 문제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지적하려고 한다. 분명히 첫 번째 부인 사차는 그의 작업을 지지하지 않았으므로, 로스코는 이미 집 안에 사차라는 비평가를 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차는 보석 디자인계에서 놀랄 정도로 급부상했다. 로스코가 심한 조조기였기 때문에, 부인의 성공은, 특히 부인을 외조 해야 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디자인이나 삽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적잖이 경멸했고 장식, 장신구 등에 대해서는 더욱 못견뎠다. 로스코의 화난 어조는 이런 사적 감정 때문이었고 분명히 그 중 얼마간은 부인에게로 향해 있었다.

로스코는 대중을 두려워했지만 작품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대중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찬사를 받고나서도 그는 여전히 그림은 무분별한 대중에게 오해받고, 결국에는 침해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로스코는 작품 속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켰다. 그가 표현하는 리얼리티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도 내적이기 때문에, 세상 밖, 대중의 눈앞에 그림을 내놓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었다. 사실, 그의 분노는 나약함에서 온 것이다. 그 나약함이란 그림에 대한 외부 관객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로스코 자신의 심약성 때문에, 외부의 부정적 평판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러다 1945년 로스코는 메리 앨리스 비스틀과 만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재혼하게 된다. 그들의 결혼생활은 더 행복했고, 앨리스는 첫 번째 부인에 비해 그의 작업에 훨씬 협조적이었으며, 고전적 추상성이 드러나는 작품 이전에 그린 걸작, <바다 끝에서 이는 작은 소용돌이>의 영감을 주기도 했다.

1947년부터 작품이 점점 더 추상화되다가 로스코 후기 작품의 특징인 직사각형의 색면 구성으로 발전되었고 뉴욕의 베티 파슨스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47년을 경계로 이전에 보였던 형태와 이미지, 선적인 표현모습을 감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색면이 점차로 가까워지고, 혹은 분리되어 단순화되고 점점 망막한 사각의 형태가 되기 시작한다. 로스코는 이미 1943년(뉴욕 타임즈)에 보낸 고틀리브와의 공동시간 속에 이렇게 썼다.

“우리들은 복잡한 사고의 단순한 표현을 좋아한다. 거대한 형태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 이야말로 명백한 충격(impact)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코의 색면에는 윤리적인 고뇌가 최초부터 스며들어 있었고, 로스코의 화면은 더욱 인간 내면의 어두움과 겹겹이 쌓인 고통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정념의 무거운 위기의식이 색면 깊숙이 쌓여 있다. 당시 피터 셀즈(Peter Selze)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50년대의 로스코의 많은 작품은 마치 몹시 하전되어 있는 듯이 느껴진다. 우리들은 구름이 하늘을 다 덮었을 때의 그 폭풍우 전의 무거운 시간 세계에 얼굴과 맞대고 있는 듯하다. 그의 작품들은 심한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도 안에 숨기고 있다. 일면 조용하고 명상적인 화면은 그 속에 소란과 정열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1948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의 연례 전시와 ‘현대 미국의 조각, 수채화, 드로잉’전에 참가하다가 10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로스코는 깊은 상심에 빠져 작품제작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1949년 캘리포니아 미술학교에서 회화를 가르치고 현대미술에 관한 강의를 맡았고, 이후 그의 작품 제목은 번호와 제작 연도로만 작성된다.

1954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11월 3일 앙리 마티스가 세상을 떠나자, 로스코는 자신이 열렬히 존경하던 예술가에게 헌정하는 <마티스에게 경의를>을 그렸다.

1959년 두 번째 유럽여행을 시작하였고 뉴욕으로 돌아와 벽화를 전시할 시그렘 빌딩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였는데 공간의 위압적 분위기에 반감을 느껴 계약을 철회하였다.

1962년 1번가 1485번지의 새로운 작업실로 옮긴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의뢰한 벽화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봄에는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1966년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유럽을 여행하였고 1967년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1968년 4월-5월 대동맥 이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3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의사는 로스코에게 높이 1미터가 넘는 그림은 그리지 말 것을 권유했다.

1969년 두 번째 부인 앨리스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봄에는 ‘어두운 그림’작업(검정, 회색, 갈색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 연작) 시작하였다. 예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하였다.

1960년대 후반 그의 작품은 대체로 어두워졌는데, 말기 작에는 화면을 수평선으로 양분되는 등 그 구성이 더욱 단조로워지고 무거움과 우울함의 정조가 배어 있다. 우울증이 악화되던 작가의 당시 심적 상태를 반영하는 듯하다.

12월에 로스코는 그의 어두운 회화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파티를 작업실에서 열었고, 1970년 2월 25일 로스코는 뉴욕의 그의 작업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

## 2) Mark Rothko의 작품세계

예술을 통하여 정신성을 구현했던 추상표현주의의 작가 마크 로스코 (Mark Rothko)의 작품세계를 초기, 과도기, 원숙기 세 시기로 나누어 연구해 보았다.

### a. 초기<1920년대 - 1930년대>

“인물을 그린 위대한 화가들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초상화들은 특정 모델의 특징을 떠올리기보다 서로 닮은꼴에 가깝다.”-마크 로스코-

1920년에서 1930년대 동안 로스코는 누드, 자화상, 인물이 있는 내부 정경, 도시와 자연경관 등을 그린 수백 점의 그림을 종이와 캔버스에 남기고 있다. 로스코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형태의 고의적 변형과 물감의 엄격한 적용은 몹시 선명한 아프리카와 대양주 미술, 어린이 미술과 같은 몇몇 비서구 시각 전통이 공유한 특징들이다. 드로잉과 회화의 재료와 도구에 대한 초창기 실험적 시도는 흑연, 잉크, 투명·불투명 수채, 유채를 포함한 많은 소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23년 뉴욕으로 온 뒤 전설적인 예술 학생 연맹에서 수학한 것을 제외하면 로스코는 정식 미술 수업을 거의 받지 않았다. 로스코에게는

---

9) <Mark Rothko 예술가의 리얼리티 > 마크 로스코 지음 크리스토퍼 로스코 편집, 김순희 옮김, 다빈치, 2007 p.206-269

화가 밀턴 에버리(Milton Avery)라는 중요한 스승이 있었으며, 에버리의 절제된 형상, 미묘한 색감은 젊은 로스코의 작업 방향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

젊은 시절 드라마에 가졌던 관심을 발전시켜 신화와 심리 분석서들을 닮는 대로 탐독했고, 렘브란트의 그림, 모차르트의 음악, 니체의 철학은 로스코의 사상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로스코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1920년대 후반의 작품들은 관례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의 자연풍경과 누드습작 등 아카데미한 작품들이며 이러한 작품들은 1920년대 미국 미술의 지배적인 경향인 사실주의를 느끼게 한다. 이 시기에 로스코는 야수파와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특히 세잔의 조형이념의 영향을 받은 막스 웨버(Max Weber)<sup>10)</sup>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로스코의 초기 전시회에는 야외 풍경을 그린 ‘무제’(풍경화)와 같은 수채 풍경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자연의 유기적 곡선 묘사는 재빨리 도시의 기하학적 구도로 대체된다. 동시에 형상은 갈수록 뒤틀려 나타나고, 이런 특징은 1930년대 말 그려진 두 작품 ‘거리 풍경’과 ‘지하철 판타지’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후자는 로스코가 뉴욕 지하철을 인간 소외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탐구한 대표적 작품이다. 평면적이고 무표정하면서 지극히 연약한 인물들은 그물망 같은 답답한 지하세계에서 건축적 배경과 뒤섞인다.

#### b. 과도기<1940년대>

로스코는 1940년을 전후해 미국에서 일었던 급격한 화풍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해외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폐해와 혼란, 유럽을 피

---

10) 막스웨버(Max Weber) 미국에 유럽의 큐비즘을 맨 처음 소개한 러시아 태생 화가.

해 뉴욕으로 온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호앙 미로(Joan Miro), 피에 몬드리안(Piet Mondrian)이 유입한 사상으로 인해 마크 로스코와 동시대 화가들의 회화는 구상화에서 추상화로 이행한다.

1940년대에 이르러 로스코는 "추상 표현주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때로는 "뉴욕 학파"라고도 불리는 느슨하게 구성된 일군의 화가들과 함께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 화가들이 전부 뉴욕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것은 아니며, 또한 추상화에 대한 접근방식도 서로 큰 차이를 보였다.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잭슨 폴록(Jackson Pollock)<sup>11)</sup>은 몸짓을 통한 예술적 표현에 천착한 반면, 로스코를 비롯한 바넷 뉴먼(Barnett Newman), 클리포드 스틸(Clyfford Still)은 거대한 색면의 표현적 가능성에 주력했다. 특히 밝은 시각 효과를 내는 색면이 일깨우는 신체적 감각을 탐구했다. 로스코는 회화가 비극, 환희, 숭고함과 같은 영원한 주제들과도 때로는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예술이 인간조건의 비극성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로스코는 "이제 누구도 형상을 훼손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1940년 즈음 로스코는 면 분할된 영역 속에 위치한 반복되는 형태와 심하게 분절된 인간 형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 '무제'와 같은 일련의 회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가 진행될수록 로스코의 이미지는 더욱 상징성을 띠고, '근원', '물속 드라마'처럼 신체적 변형을 그린 회화로 이행하면서 추상화에 더욱 근접한다. 이 그림들은 초현실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종이와 캔버스를 이용해 그려진 많은 그림들의 일부분이다.

---

11) (Paul Jackson Pollock, 1912.1.28~1956.8.11)미국의 추상화가. 표현주의를 거쳐 격렬한 필치를 거듭하는 추상화를 창출했고 화포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는 액션페인팅 기법을 개발하여 세계 화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47년은 바야흐로 로스코의 회화에서 모든 구상적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대신 느슨하게 정의된 "다층 형상"이라 불리는 색면의 비객관적 구도가 등장한다. '작품 9번'이 대표하는 다층 형상의 시기는 1947년에서 1949년까지 지속되며, 이 시기 로스코의 작품 세계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캔버스화의 방향과 모양, 그 위에 창조된 형태, 색조 범위는 구도상 절제되고 극도로 복잡한 색면을 특징으로 하는 로스코 독특한 양식의 기초가 된다.

미국에서는 제 2차 대전을 전후로 유럽의 회화 전통과 구분되는 색다른 양상을 보이며, 국제적인 양식의 흐름에서 New York 10번가를 중심으로 최초의 국제적인 미국미술운동인 추상표현주의가 탄생하여, 1940년대와 50년대에 미국화단을 지배하게 된다. 1940년쯤까지 미국미술을 사회적 리얼리즘, 지방주의·지역주의가 지배적인 형식과 유럽미술의 아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1930년대에 유행한 국수적인 미국풍경 화가들을 비난했고, 벤 샐 등을 싸구려 선동자라고 비난하였다.

로스코를 위시한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시대나 지역적인 것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며, 기법적으로는 당시 미술계에서 기하학적인 추상화 함께 양대 조류를 형성하던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Automatism)을 수용하여 40년부터 46년에 자신의 회화적 언어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 c. 원숙기< 1950년 - 1970년>

로스코의 작품에서 뿜어 나오는 심오하도록 사색적이고 폭넓게 암시적인 아우라는 작품을 대하는 감상자에게 자신을 몰입시켜 몰아의 경지

에 들어서고 신비적 공허와 숭고를 체험하게 한다. 이들 밝고, 찬란하고, 암울하게 사색적인 절제된 추상화들은 로스코 생애 마지막 20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로스코는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클리포드 스틸(Clyfford Still)을 포함한 뉴욕 화파 일 세대 화가들 중 한명으로 큰 존경을 받았다. 사각형 틀 안에서 각기 다른 톤으로 부드럽고 잔잔하게 얼룩져 있는 그의 화면은 잭슨 폴록과 함께 추상표현주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20세기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화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화가의 작품은 한순간 한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명확한 사실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은 화가와 관념, 관념과 감상자 사이의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다.

1950년경 로스코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구축하여 '단순한 표현 속의 복잡한 심정'이라는 그의 이상을 실현하였다. 이들 작품은 보통 1955년 작 '무제'에서 나타나듯이 두개에서 네 개의 직사각형이 큰 색면 위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도를 보인다. 이런 형태 안에서 로스코는 폭넓은 색채와 색조, 여러 가지 양식적 관계를 활용해 극적이고 소박하며 시적이기도 한 다양한 분위기와 효과를 자아낸다. 로스코의 작품은 1950년대부터 상당히 어두워진다. 1958년 무렵에는 화려한 색상 대신 붉은색, 갈색, 고동색, 검은색 등 어두운 색을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특히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몰두했던 벽화작업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1968년 대동맥류가 발병한 후 로스코는 주로 커다란 캔버스에 그리던 것을 그만두고 종이에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들 작품 중 상당수는 판넬이나 직물 위에 설치되어 틀이 없는 캔버스화 처럼 보인다. 1969년 작 '무제'는 로스코가 생애 마지막에 그린 고동색 혹은 검은색

과 회색의 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그의 작품 구도는 기본적인 색채, 색조, 색면의 대치구도로 한층 집약된다. 하지만 선명한 붉은색으로 가득한 1970년 작 ‘무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오로지 어두운 색채만이 그의 작품을 압도했던 것은 아니다.<sup>12)</sup>

마흔이 되어서야 자신만의 성숙된 양식을 발전시켰던 로스코는 그가 평생 힘들게 지켜온 주제나 내용에 대한 추구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으며, 나아가 물질주의가 팽배하던 미술이라는 토양위에서, 또한 예술적 상징이 사라져버린 사회적 상황에서 소신 있게 인간의 한계와 영원성의 문제에 전념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로스코는 자신의 회화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실존과 마주하고자 했던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로스코 작품의 주제인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

---

12) 삼성 리움 미술관 [www.leeum.org](http://www.leeum.org)

## 2. 색채의 이론적 배경

### 1) 색채 심리의 이해

색에도 느낌이 있을까? 즉 ‘따뜻하고’, ‘차가운’ 그런 느낌말이다. 빨간색을 따뜻한 색, 파란색을 차가운 색으로 구별 지어서 교육을 받아 왔다. 이렇듯 학습되어졌건 학습되어지지 않았건 색의 자극을 통해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색에 대한 심리적 혹은 정서적 반응이라 한다. 색을 통한 감정 변화는 개개인의 반응이 다르며, 기후나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

의사인 펠릭스 도이취(Felix Deutsch)는 1973년 색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했다. 그의 연구는 색채와 관련된 의학적인 치료 문제와 색채 심리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서광을 비춰 주고 있다. 그는 “모든 빛의 작용은 인간의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빛 에너지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각에나 뇌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햇볕이 좋은 날에는 기분도 좋아지고 활동량도 많아져서 일에 능률도 오를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의 기분은 환경, 날씨, 추함과 아름다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색에 대한 반응 역시 울적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하는 반응이 보여 진다. 13)

일반적으로 인간이 물체를 볼 때 색채를 느끼는 것이 80%이고 나머지가 20%가 선과 형태이다. 또한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 즉 미각(1%), 후각(2%), 촉각(3%), 청각(7%), 시각(87%)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이 차지하는 기능은 매우 높다.

---

13) 색채를 이용한 대상의 표현 연구 = (A) study on the expression the object using color  
김현성,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43

밤과 낮, 어둡고 밝음의 사이에서 인간은 공포와 환희, 즐거움이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의 모든 색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색의 신비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고, 인간의 내면성과 접목된 색채 심리라는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색채심리는 색채와 관련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생리학, 예술, 디자인, 건축 등과는 관계를 가진다. 색채심리학에서는 색채를 지각하는 과정으로부터 색채에 대하여 가지는 인상, 조화감 등에 이르는 여러 문제를 다룬다. 특히 색채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에서 출발하여 인간이 색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는 분야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기호와 집단적 기호 그리고 역사성과 지역성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된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끼는 색채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 여러 가지 색 속에는 대비와 조화 그리고 동화라는 인간이 색을 느끼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색을 느끼는 과정에서 하나의 색은 대비를 통하여 본래의 색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동화작용을 통하여 유사한 색이 되기도 하고, 다른 색과 비교됨으로써 무겁거나 가볍거나 또는 보다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따뜻한 색이나 차가운 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전된 색채의 심리적 영향은 개인에게 있어서 싫거나 좋거나 등의 반응을 가져오는 선호색과 혐오색이 되며, 나아가 집단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시각언어가 된다. 바로 이러한 색채의 주관적, 객관적 다양성을 연구에 포함한 분야가 색채 심리이다.

심리학적 견해에서 색은 우리들의 시각을 통해서만 감지 될 수 있으며,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색을 볼 수 없다는 일반론에 반해, 인간의 정신 기체의 작용과 상태에 의거 한다는 심리학적 견해가 있다. 그리고 색채

가 갖는 따스하거나 차가운 느낌, 무게와 크기 그리고 색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과 색채의 부차적인 성질도 여기에 포함시킨다.<sup>14)</sup>

색채는 지구촌의 인류가 어디에서나 지각하고 사용하는 보편매체이자, 문명의 기반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색을 고르게, 그리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색채는 인간의 안락과 행복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심미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본래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고프리치(E. H. Gombrich)의 “색채 경험은 마음의 심층까지 자극한다.”<sup>15)</sup> 라는 말이 설명해 주듯이 색채는 직접적인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정신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색채와 인간 감정과의 관계는 러스킨(John Ruskin)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잘 표명되고 있다. “완전한 오감과 올바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모두 색채를 즐긴다. 색채는 인간마음의 영원한 위안이며 즐거움이다. 그것은 최고의 창조물에 풍부히 주어진 것이며, 그 완성의 명백한 표식이며 확증인 것이다. 색채는 인체의 생명과 하늘의 빛남과 땅의 청결함과 숭고함을 연상케 한다. 죽음과 밤, 그리고 모든 부정은 색채를 갖지 않는다.”<sup>16)</sup> 이것은 색채가 갖는 심리적 가치의 일반적 특성을 말해준 것인데, 인간이 색채를 봄으로써 끊임없이 복잡한 인식작용, 정서반응을 가지는 한 색채는 인간의 정신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한편 허버드 리드(Herbert Read)의 색채에 대한 역할을 정리해 볼 때

---

14) 색채를 이용한 대상의 표현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the object using color 학위논문(석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4. 8 김현성 p.57

15) Anton Ehrenzweig, The Hidden Order of Art, Berkley and L.A. Univ. Calif. Press, 1967, p.156.

16) 허버드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을서문화사, 1982, p.74

색채는 정서적 방법으로의 역할이라는 이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구속하고 있는 회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색채는 설명을 위하여 굳이 존재물의 의견을 빌리지 않고도 시각적 자극에 의하여 순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역할을 한다.<sup>17)</sup>

색채는 새로움, 즉 감정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다. 또한 우리 시대의 회화가 색채의 지속적인 발전의 역사임을 볼 때, ‘색으로의 회귀’는 오히려 색채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낳았으며, 색채를 ‘우리의 뇌와 세계가 만나는 장소’라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로서의 파악이 가능해 진다.

결국 대상과 무관계한 색채질서에 의한 표현은 후에 추상표현주의, 특히 색면추상에 공헌하고, 색면추상은 발전적 고민을 통해 다시 색채의 성격 역할의 확장에 영향을 미친다.

## 2) 색의 상징성

색채가 여러 가지의 연상을 일으키고 상징적인 의미와 심리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색채 감정은 색채가 인간에게 미치는 기본적인 효과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차가 별로 없지만 연상이나 심리 그리고 상징은 생활양식이나 문화적인 배경과 지경, 그리고 풍토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민족성 등 많은 차이를 보인다.

색에 관한 다른 책에도 색의 상징과 심리가 많이 기술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의 상징이 많다.

---

17) <색면추상의 색채표현에 관한 연구> 김희성,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2003.02 p. 29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색한가지를 보면 이전의 정보와 경험에 의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보면 불, 열정, 혈액 등의 이미지를 연상하며, 파란색은 시원함, 바다 등을 연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색채를 대할 때에 사람들이 불러일으키는 연상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 많이 좌우되거나 개개인의 연상이 점차 사회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색채의 상징이란 어떤 색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 색상은 하나의 상징이나 기호로서의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에 의하면 인간은 시각, 청각, 미각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매우 제한된 정보들로 의식 세계를 이뤄 내지만 이러한 의식세계보다 훨씬 방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무의식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구체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을 통해서 떠올려진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색은 의식 세계에서는 기호로 볼 수 있으나 무의식 세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상징이 된다. 18)

#### \* 빨강(Red)

빨강(Red)은 만셀(Albert H.Munsell, 1858-1918)표 색계에서 색상번호는 1번이며 5R 4/14로 난색계이다.

빨강을 긍정적으로 연상했을 때는 피(생명),불(따뜻함),열정, 감성적인, 진취적인, 애국심, 혁명, 예수, 자유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연상을 했을 경우에는 피(상처),불(방화),죽음의 고통, 상처, 찢어지는 듯 한 감정, 광란, 전쟁, 무정부상태, 혁명(부정적인),위험, 악마, 할복자살이다. 이렇듯

---

18) 20세기 전쟁화에 나타난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 A Color psychology in the 20th century battle piece.

姜希京, 全北大學校 教育大學院 [2005] p.42

빨강색은 굉장한 양면성을 띤다.

알 슈우라와 하트 위크는 <페인팅과 퍼스널리티>에서 빨강색에 대해서 ‘행복한 상태 또는 애정이 결핍되어 있든가 적의에 가득 참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Munch, Edvard, 1863.12~1944.1)의 <절규>(도판1)라는 그림을 떠올려 보자. 하늘을 온통 빨강게 칠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리위에서 부르짖고 서있는 인물의 자세는 사람의 혼을 그려놓은 것 같은 뭉크의 절규는 충격이 그의 그림 속에 색채(빨강)로서 고스란히 표현된 것이다. 죽음이란 슬픔과 공포에서 극복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넘치는 생의 에너지가 빨강색이 되어 그림속의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다. 마치 감정의 분출로서 표현된 것이다.

#### \*노랑 (Yellow)

노랑Y(Yellow)은 만셀 표색계에서 색상번호는 5번이며 5Y 8.5/14로 난색계이다.

태양, 빛, 밝음, 자손의 번창, 확대, 지성, 뛰어남, 지혜, 고귀한, 곡식의 숙성, 직감 그리고 배신과 비겁함, 악담, 순수하지 못한 사랑, 타락을 연상시키는 것은 노랑이라 할 수 있다.

노랑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배반의 색이다. 한스 작스(Hans Sachs, 1494-1596)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노란 자, 배반자,

독이 든 사과를 너나 먹어라.

노랑이 배반자의 색으로 쓰이게 된 전통은 오래되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옷은 대개 칙칙한 노랑으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노랑은 낙관주의의 색이지만, 분노와 거짓, 질투, 깨달음, 배반의 식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사람에게 따라 부담스럽고 초조한 기분을 느끼

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즐거움과 에너지를 주는 색이다.

“노랑은 빛에 더욱 더 가까운 색채다.”<sup>19)</sup>라고 말한 사람은 피테이다. 이것은 심리상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노랑과 같은 밝은 색을 갖고 있을 때는 마음속에 빛의 밝음과 따뜻함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따뜻함 뒤에는 검정과 함께 경고의 느낌으로 최강의 대조를 보이기도 한다. 검정과 노랑은 방사선이나 독을 경고하며, 경고신호로서 교통위험표지시로도 사용된다.

위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칸딘스키는 노랑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로서 격렬하게 광기를 나타내는 색으로 평가했다. 즉 노랑은 분노의 발발, 맹목적인 광란, 그리고 노발대발하는 색이라 평가 내렸으며, 이런 평가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확증되었다. 이렇듯 노랑은 서로 상반되는 양면성을 띄고 있어서 노랑을 변덕쟁이색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비밀스럽기까지 하다. 노랑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사람의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색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반응은 거의 대부분이 기쁨에 찬 감정(들뜬 감정)과 희망찬 기대감(미래의 상징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노랑을 말할 때 반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를 빼놓을 수 없다. 그의 노랑은 인생의 마지막을 암시하듯 강렬한 터치로 칠해져 있다. 노랑의 구도자라고 말해도 좋을 만한 화가였던 고흐는 젊은 시절에 그린 가난한 탄광의 사람들을 모티브로 한 칙칙한 색조의 작품에서도 노란색이 어둠속에서 빛나는 램프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다. 빛이 강할수록 그로 인한 어두움도 깊고 날카롭듯이 어둠과 비교되어 노란색의 빛을 두드러지게 했던 고흐에게는 ‘노란색의 방’(도판2)의 그림 안에 결국 얻을 수 없었던 사람과의 행복을 이미지 속안에 ‘정지 화상’으로 영원히 새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

19) 요한볼프강 폰 괴테, 장희창<색채론> 민음사 2003

\*녹색(Green)

녹색G(Green)은 만셀 표색계에서 색상번호는 9이며 5G 5/10로 중성색계이다.

녹색은 채소 경작, 자연, 대지의 풍요, 동정심, 순응, 번창, 희망, 생명, 불사의, 젊음, 신선, 영혼의 회복, 지혜, 경사스러운처럼 긍정적 연상을 하게 되고 때론 부정적으로 죽음, 검은색 물질과 붉은 동물의 연결고리, 격노한, 질투, 천박한 도덕적 타락, 반목, 광기, 재앙을 연상하기도 한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녹색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색채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다 복통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며, 통증도 약하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은 근육과 뼈 그 밖의 세포막을 재생하는 데에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교감신경계에 최면제 작용을 하기도 한다. 녹색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뇌하수체의 자극을 돕는다. 녹색 과장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여러 병균에 대해 살균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색료에서 녹색은 노랑과 파랑을 혼합하여 어느 한쪽으로 특별히 우세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혼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녹색은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노랑이나 파랑의 양에 따라 특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녹색은 노랑과 파랑의 혼합한 중간색이지만 노랑색과 파랑색은 그대로 사용하면 격렬한 배색효과를 나타낸다. 세잔은 이 대비되는 두 색을 혼합함에 따라서 그림에서 중용을 느끼게 하며 차분함이 감돌게 한다. 세잔(Paul Cezanne 1839년-1906년)은(도판3) “색조관계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으면 조화는 스스로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 성과의 하나가 무엇보다 ‘조화’였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자연이 보여주는 온화함과 존재감(自存感)의 조화에서 보듯이 세잔의 회화 관이야말로 변용이 풍부한 녹색을 사용한 것이다.

녹색은 부드러움뿐만 아니고 늠름함과 엄격함을 갖추고 있으며, 그 두 가지가 조화될 때 마음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노란색과 파랑색처럼 극단적인 색이 섞이어 만들어진 녹색의 성질, 그 자체라고 생각된다.

#### \*파랑(Blue)

파랑색B(Blue)은 만셀 표색계에서 색상번호는 13번이며 5B 4/8로 한색계이다.

파란색은 하늘, 축제(밝은 파랑, Light Blue)를 상징한다. 고요한 바다, 명상, 신선한 느낌, 헌신, 순수, 진실, 영원, 자애, 정의, 찬 느낌을 연상시키며 부정적으로는 밤과 폭풍이 치는 바다(어두운 파랑), 의심과 낙담을 연상시킨다.

파랑은 상실감을 치유하고 회복을 가져오는 색이라는 것을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많이 암시하고 있다. 색채 심리조사 한 것을 봐도 파랑을 좋아할 때의 심경으로 ‘절망’, ‘이별’, ‘고독’등을 꼽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자기탐구’, ‘정화’, ‘치유’, ‘내적성장’, ‘해방’, ‘자립’, ‘희망’, ‘지적’등을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게 ‘상실감’과 ‘재생’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파랑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진정효과를 주며, 모든 색 중에 사람을 가장 안정시키는 색이 파랑이다. 사람의 시각에 파랑 빛이 들어오면 뇌를 안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맥박을 느리게 하고 호흡을 깊게 만들어 준다. 또한 싸움과 같은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린다.

파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색의 상징성, 즉 파랑이 연상시키는 감정에서 나타난다.

파랑색은 상실과 재생의 마음이다.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한 피카

소 (Pablo Ruiz Picasso 1881-1973) 가 표현한 독특한 파랑. 이 파랑은 가뉘든 슬픔을 어떤 대답도 없이 반영해 주는 거울이 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스무 살 때의 작품으로 그의<자화상>(도판4)은 청색시대의 대표작중의 하나로 피카소의 친구의 자살 직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그린 것이다.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한 피카소가 표현한 독특한 파랑은 어떠한 표현기법 없이도 안에 가뉘뉘던 슬픔으로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어쩌면 피카소는 파랑색을 사용하면서 내면에 자리 잡았던 상실감을 건져 올리고 기력을 회복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 \*보라(Purple)

보라색P(Purple)은 만셀 표색계에서 색상번호는 17이며 5P 3/10로 중성색계이다.

다른 2차색인 주황, 녹색과 더불어 다른 채도나 명도의 보라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한편 약간 색다른 맛도 있다.

보라의 긍정적인 연상으로는 힘, 정령, 고귀한, 진실한 사랑, 충성, 절대적 지배력, 인내, 겸손, 향수, 기억이며 부정적으로는 승화, 순교, 회개, 사직, 비하, 애도를 연상하게 한다.

1908년 영국 여성인 에멀린 페틱로렌스(Emmeline Pethickn Lawrenci)는 보라, 흰색, 녹색을 여권운동의 색으로 발표했다. “지배자의 색인 보라는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여성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왕의 피를 상징하며, 또 자유와 품위에 대한 여성의 자각을 상징한다. 흰색은 사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에서 정직함을 상징한다. 녹색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 \*갈색(Brown)

갈색 계열은 노란색과 빨강색 사이에 배열되어 있으며, 비록 어둡고 중

간색이지만 대단히 풍부하고 심오한 색으로 전통 가구의 목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갈색의 연상내용은 대지, 가을, 돌, 낙엽, 비옥함, 여유 등이며 갈색은 느린 파장을 가진 무거운 색이다.

갈색은 흰색,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은 색들과 어울리며 긍정적 측면으로 자연적으로 평온한 느낌을 준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활력과 생명력을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갈색은 주변 환경에 적용시키기에 건강한 색으로 여겨지며 정상적인 신진대사 작용을 수행하기에 좋은 건강한 외적 환경을 제공한다. 갈색 물체들은 내적 신체기관과 정신을 강화시켜주며 극도의 정신적 혼란과 번덕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갈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된다. 갈색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세로토닌 Serotonin(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의 합성을 촉진한다. 만성피로감을 약화시키고 프로스타글라딘 prostaglandin E의 형성을 촉진한다. 프로스타글라딘은 인체의 조직과 유기체에 있는 호르몬과 같은 물질로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자궁, 뇌, 두통, 면역성, 기분 등을 좌우하는 트립토판(tryptophan)아미노산의 산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 \*흰색(White)

흰색은 낮, 순결, 청결, 완벽, 정확, 지혜, 진실이라는 긍정적인 연상과 유령의, 영적인, 추운, 텅 빈 부정적 연상을 하게 된다.

오방색 중에 백색은 ‘백의민족’이라 일컬어질 만큼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흰옷을 숭상하는 것은 청렴결백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계급이 낮은 농민, 서민은 흰옷을 입게 하고, 물들인 채색 옷을 입는 것을 금했던 것이다. 그래서 백색은 서민의 색이었기에 한국인의 백색은 무색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일반 백성의 옷은 한결같이 백색 중심의 무채

색이었으며, 옷의 색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물건도 계급에 따라 색채가 제한되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집안 풍경을 살펴보면 벽이나 창은 한지, 창호지, 닥지, 회벽 등의 회백색조이며, 옷의 색은 회색, 백색이며 백자들과 문갑, 장롱은 한결같은 무색조이다. 이 같은 회색조의 취락풍경은 자연의 색과 어울려 조용하고 안정된 조화를 이루어 모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하는 심리 상태를 이끌고 나아가 우리의식 가운데 가장 보편적 조화 상태에 이르는 무색중화의 의식구조를 갖게 한다.

\*검정(Black)

검정은 빛이 없음을 나타내며, 흰색의 반대색이다. 검정의 연상내용은 불안, 죽음, 밤, 암흑, 상복 등이며 검정색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롭다. 검정색은 활력과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울증을 수반하여 사람들의 범죄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강대한, 위엄 있는, 단호한, 지적교양, 단호한 결단력, 신성한, 엄격한 연상을 주기도 한다.

\*회색(Gray)

흰색,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이지만 그들의 중간색인 회색은 모든 색이다 소멸되어 가는 소극적인 인상이 강하다. 그래서 중성(中性)인 회색은 인접된 어떤 색에도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색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배경색으로 이상적이다.

긍정적으로는 성숙, 신중, 겸손, 회개, 단념, 회상이 연상되고 부정적으로는 중화, 이기심, 의기소침, 무력, 무관심, 불임, 겨울, 비통, 나이든, 후회가 연상된다.

은밀함에는 악이 붙어 있다. 회색은 모두가 숨기는 감정, 인색과 시기의 색이다.

우리 주변에서 회색이란 단어는 흐린 날씨의 일상어와 시어가 되어 사용되며, 사람들은 회색을 따뜻하거나 차가운 색도 아니며 모호하고 특성이 없는 색으로 간주한다.

\*무채색의 심리

피카소의 모노크롬 대작인 게르니카(도판5)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여자가 절규하고, 소와 말이 울부짖으며 어린아이의 시체가 그려진 처참한 구도의 그림이다. 흰색, 검은색, 회색을 중심으로 한 모노크롬의 색조로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색채는 구원을 의미한다. 작품을 눈앞에 두고 조각가 무어는 “왜 색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피카소는 “색채는 어떤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을 들은 무어는 “이 그림에서만은 구원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돌이켜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색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이 표현하는 색채가 인간성 그 자체, 특히 자유, 감정, 생명이란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노크롬의 <게르니카>는 인생의 자유를 너무 사랑한 피카소에게 그 자유로움을 빼앗는 전쟁의 어두움을 고백하는 증언과도 같은 작품이다.<sup>20)</sup>

---

20) <색채심리> 스에나가 타미오지음, 박필임 옮김, 예경, 2001 p.35-64

### 3. 마크 로스코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와 심리

인간이 색채를 봄으로써 끊임없고 복잡한 인식작용, 정서반응을 가지는 한 색채는 인간의 정신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회화란 눈의 작용을 매개로 하는 시각예술이므로 화가는 시각작용의 매개로 색채를 가장 널리 사용해 왔다. 따라서 회화에 있어 색채의 의미나 역할은 역사적으로 시대나 작가의 의식에 의하여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것은 외형적인 표현방법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세계관과 결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1) 마크 로스코에게 있어서 색채의 의미

1950년대 이후로 로스코는 색채에 의미를 부여해 색채가 형태를 붕괴시키고 동시에 캔버스에 침투해 팽창시키며, 공간과 평면의 관계를 새로이 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더욱 잘 감지하기 위해 대형 캔버스를 사용하고 관객들을 그 안에 침잠 시키며 그에게 있어 색채가 그 진가를 발휘한다.

이렇듯 색채가 강렬한 회화수단의 환원된 양식으로서 절대적이기를 바라는 로스코는 색채표현에 주력하였고 감동적인 색채를 화면에 표출하기 위해 무의식의 영역을 포함하여 의식적 변화를 추구했다.

로스코는 색채사용에 있어서 이미 증명된 제 법칙들을 거부하였다. 그는 반 색조와 부조화한 색채의 병치가 그의 독특한 기법들과 결합하여서 밝은 색은 즐겁고 어두운 색은 슬프다는 일반적 공식을 넘어서 거의 초자연적인 미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강화하도록 사용하였다. 또한 그의 작업들은 장식적이고 거대한 화면 속으로 색채를 침투시켜나갔다.

그는 숭고한 효과를 색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독특한 그

의 색채기법을 통해 색채는 신비롭고 정신적인 빛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색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그는 점차 그의 전시들을 하나의 환경으로 제시한다. 다시 말해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들이 모여 협주를 이루듯 그의 각 작품들은 하나의 새로운 전체로서 독특한 효과와 강렬함을 발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가는 강하고 한결같은 색채에 의한 막막한 색면을 묘사하고 잠재적이면서 외부로 확산하는 힘을 표현하였다.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은 손의 운동을 대신하여 주로 색채의 즉각적이고도 애매한 환각을 이용한 것이다.

로스코는 무의식의 영역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자인 융의 견해를 받아들여 색을 인간의 감정체계 뒤에 있는 무의식에 관한 추구로 여겨졌으며 정신적 영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었다.

또한 형태를 확대시키고 화면의 평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색채의 표현력은 강조되었는데, 그 결과 색채와 형태가 동등한 위치를 획득하였고 특유의 스테이닝 기법에 의하여 색채는 비 물질화 되어 보이게끔 된다. 로스코는 색채에 있어서 장식성과 감각성을 배제하였으며, 또 다른 리얼리티로 향하는 출구로서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중점을 주길 바랐다. 1950년대 이후 색채는 그의 작품의 본질이 되었다. 그는 색채를 단순히 회화적 요소로서 조화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 했다가보다는 색채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전제하 상징성에 그 중요성을 두었고 색채로의 상징성 획득이란 측면에서 보면 색채의 절제는 필연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색은 미리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수성이 예민한 로스코의 직관에 의한 것이다.

로스코는 색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하여 다른 시각적 요소들의 활용을 최소한 줄이거나 아예 없애 버렸고 외관상 넓은

화면들은 무한성의 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색채를 통해崇高함을 직접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21)

## 2) 마크 로스코의 색채사용 특징

미국 추상표현주의 양식이 대두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기하학적 추상이 지배적인 추세였던 미국의 화단에 망명 초현실주의 작가들인 에른스트, 마타, 고르키 등이 뉴욕의 젊은 미국 화가들에게 초현실주의 오토마티즘을 전파함으로써 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초현실주의 자동기술법에 크게 매력을 느낀 이 젊은 화가들은 이를 현대 미술의 한 기법으로 발전시켜 추상미술에 접목시킴으로써 유럽의 영향권을 벗어나 그들 나름의 새로운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이루어 내었다.

이렇듯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는 회화에 있어서 무의식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sup>22)</sup>에서 강한 암시를 받았다.

추상표현주의자들, 특히 잭슨폴록의 경우 이런 오토마티즘의 강조는 드립(Drip)<sup>23)</sup>기법의 개발, 또는 그린다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둔 액션(Action)적인 제작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추상표현주의는 이 점에서 추상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즉, 전통적인 추상은 구상회화의 경우처럼 인간, 사물, 풍경 등을 표현 대상으로

---

21) 抽象表現主義 畫家 마크 로드코(Mark Rothko)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Abstract Expressionist Mark Rothko

안대현,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2000] p.58

22) 오토마티즘은 초현실주의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후 20세기 미술 및 문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전혀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 가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23) 흘리다의 뜻.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 놓고 그림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부어 버리는 회화의 기법. 자동기술법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목표가 형식적 요소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삼지 않지만 삼각형, 원, 부정형 한 점이나 선, 또는 면에 의해 생성되는 형상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형상은 현대회화의 한 특성으로서 그 때문에 화면은 원근감을 잃고 평면화 되고 있다. 추상표현주의는 오토마티즘에 힘입어 이러한 형상성을 초월하고자 했다. 따라서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심상의 이미지를 화면에 형상화 시킬 때 본능에 대한 순간적이며 직관적인 표출에 그 성격을 부여한다.

추상표현주의의 서정성, 작가 자신의 내적, 외적으로 농축된 삶의 경험 세계에 대한 내용과 감정 등 응축된 잠재적 정서로부터 유발되는 내적 필연의 욕구가 잭슨폴록에 이르러 작가의 자발적 행위라고 하는 신체의 Action의 개입방식이 작품의 리얼리티를 결정하는 행위적 회화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면성에서 보다 자율적인 형태, 자연 발생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전면적인 선(all over-line)에 의해 강조되고 부각되어진다. 이에 반해 로스코는 거의 단일하고 집중적인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색면 추상계열의 작업을 전개했다. 그는 미술사상 유래 없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단순화된 구조와 색채로 숭고함과 무한성의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형태는 화면의 원근감을 잃고 평면화 되어 갔고 순수한 추상적 표현으로 화면 전체에 윤곽선을 그리지 않는 단순화된 넓은 크기로 이념을 표현하였다. 즉 조형수단 자체를 순수화시킨 색면추상은 회화라는 지고한 상징물을 설정하여 보다 순수하고 절대적인 태도에 기초를 둔 초월적인 영역의 탐구에서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암시하려는 회화 양식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지 어떻게 말하는가는 방법적인 문제로 부차적인 것이다.

이러한 색면추상은 색채의 표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까지 이끌어 가며 변화와 불변성이라는 이중성이 본질인 회화를 지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색면추상의 가장 의미 있는 본질이라 하겠다. 색면추상은 회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원칙상 모든 재현적 형태를 거

부하는 무의식의 자동기술법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로스코의 1950년대 이후의 작품들은 일관된 경향이면서 다양한 면모와 변화를 지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시기의 가장 성공적인 효과는 Staining기법<sup>24)</sup>에 의해 색채가 비 물질화 된 듯이 보이는 것이다. 이 채색과정은 색채의 형태와 명암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색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색채 속에 색채를 더할 수 있는 독자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로스코 색채의 화학적 광도와 따뜻한 색의 부조화적 병치는 신비적 분위기를 창조한다. 이와 같은 기법은 로스코가 초현실주의적 작업으로부터 해 온 수채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는 Staining기법을 완숙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음으로서 대부분의 그림에서 색면의 가장 핵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내적인 빛의 성질과 명료하고 영적인 빛을 결정하는 성질을 창조해 냈다.

배경과 형태사이에 색은 점점 그 강도가 같아지고 화면은 더욱 평면성을 띠게 되었지만 로스코의 화면이 결코 평면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평면성의 방법과 사각형을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여러 겹의 얇은 채색으로 깊이감은 제한되고 배경과 형태는 다시 병합된다. 또한 형태의 윤곽을 불명료하게 함으로 갑작스런 분열이 방지되고 화면의 평면성 강조, 깊이감의 약화 등 색면들이 화면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서는 것 같기도 하여 매우 역설적인 불안정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 번 덧칠한 색의 베일이 아주 가볍고 안개처럼 흐려서 감상자와 화면 사이에 떠 있는 듯하고 감상자들을 에워싸는 것 같은 신비한 느낌 때문이다.

이러한 신비한 분위기와 충격적인 색채는 화면의 대규모화에 의해 효

---

24) 수채화의 기법을 유화에 적용시킨 것으로 얇게 여러 번 칠하거나 붓으로 뭉개어 마치 녹이 배어 있는 듯 표현하는 기법.

과가 더욱 발산되고 있다. 또한 회화가 절대적 행위이어야 한다는 로스코의 의지는 그를 필연적으로 회화의 순수성으로 향하게 하고 있으며 단순성이 본질인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직접성과 순수성으로 그의 관념들을 표현하고 있다. 25)

### 3) 마크 로스코 작품의 색에 반영된 심리

먼저 로스코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 중의 하나인 대비되는 색을 배색하여 대조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1954년 11월 3일 앙리 마티스가 세상을 떠나자, 로스코는 자신이 열렬히 존경하던 예술가에게 헌정하는 <마티스에게 경의를>(도판 6)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강한 대비를 이루는 경향의 색채가 나타났다. 따뜻한 색에 찬색을, 찬색에 따뜻한 색을 또는 그 반대의 혹은 밝은 색 위에 어두운 색등 일루전의 정도는 부드럽고 투명하여 화면 전체가 되어 분리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26)

이 작품에서도 파란색을 사용하였는데, 화면 하단부에 파란색의 사각형이 위치하고 그 위에 희미한 노란색의 사각형이 놓여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희미한 노란색과 그 밑에 칠해진 붉은색이 전혀 뜻밖의 푸른 색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란색을 덧칠한 밑에 어렴풋이 보이는 붉은색이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물론 노란색의 덧칠을 하지 않은 부분은 붉은색이다. 이것은 이상한 효과인데 노란색과 붉은 색을 혼합하게 되면 주황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코는 비정상적인 색채표현을 통하여 이미 증명된 색채 작

25) MARK ROTHKO의 회화 세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申惠榮 p. 37

26) Mark Rothko의 회화 세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申惠榮 1996 p. 48-49

용의 법칙들을 거부하고 그 자신의 규칙과 색채를 재발견하였다. 그것이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에 대한 그의 경의를 뜻한다.<sup>27)</sup>

1911년대의 마티스의 솔직하고 단순하게 형태의 표면을 평면화 시키는 감각적인 색채 사용은 로스코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로스코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완곡히 대비시키는 기법은 마티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마티스와 달리 로스코는 엄숙한 윤리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상징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의 주황과 빨강은 카톨릭의 제복을 암시하는 듯하며 진한 파랑의 사각형은 대단히 물리적으로 보여서 희미하고 비물질적인 느낌의 노란 사각형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빛나는 광휘와 같은 노란 사각형은 종교적인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 작품은 형태와 공간, 실재와 비 실재,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중간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sup>28)</sup>

1943년도의 작품 <Untitled>(도판7)(도판8)이 그려진 배경은 불행하게 첫 번째 결혼생활을 끝낼 때쯤이었다.

그림에 나타난 빨간색과 녹색의 고채도 끼리의 보색배색이 가지는 강한 자극은 이에 의하여 유발되는 편중된 심리적 감정변화는 상반되는 감정으로의 움직임일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본능으로 인하여 상반되는 색조의 색을 원하게 될 수가 있다. 이에 비해 상반되는 색조와 색상을 모두 포함한 대비색조의 보색배색은 그 자체로 생리적, 심리적 균형점을 근접하게 되므로 더욱 균형적이라 지각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균형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보색배색의 경우 다른 색을 추가하고 싶어

---

27) Ibid, p.64

28)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회화연구 = (A) study of Mark Rothko's painting  
원현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p.61

하는데 이때 긴장감을 느끼고 싶거나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서 다른 색을 추가하여 균형적인 배색, 선호하는 배색, 아름다운 배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균형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고 색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리적, 심리적으로 균형을 지향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이론에 부합하여 그의 작품에 있어서도 균형이 있는 배색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균형 지향 성향은 문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균형보상심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색채를 지각하는 경우에 서로 대응되는 색채가 증명도의 회색에 가까운 보색을 원하게 되는 생리적, 심리적 욕구로 인하여 특정한 과장에 대한 경험을 고른 과장으로의 경험으로 조정하게 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중된 색채 경험을 특정한 심리적인 효과, 감성적인 효과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균형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결국 고른 과장을 사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로스코의 이 작품에서 나타난 보색 대비는 색채 균형을 지향하는 인간의 특성에 의하여 자극적인 배색을 통해 위태롭고 불안했던 상황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인 것으로 추측한다.<sup>29)</sup>

또한 1962년 작품(도판9)과 1970년대 작품(도판10)에서도 나타난 검정과 빨강의 대비적인 배색이 의미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상태이지만, 그 욕구가 너무 강하여 감정적인 폭발을 불러일으키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상태로 볼 수 있었다.<sup>30)</sup>

---

29)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보색배색의 색채 균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lance of complementary colors in fashion design

양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p.78

30) <http://www.h-c.co.kr/> Hart & color 색채학교

두 번째로 로스코의 작품에 나타난 긍정적인 색채이다.

로스코는 1945년 메리 앨리스 비스틀과 만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재혼하게 되는데 그들의 결혼생활은 더 행복했고, 앨리스는 첫 번째 부인에 비해 아버지의 작업에 훨씬 협조적이었으며, 고전적 추상성이 드러나는 작품 이전에 그린 걸작, <바다 끝에서 이는 작은 소용돌이>(도판11)의 영감을 주기도 했다.

이 작품은 그의 두 번째 아내 메리(Mary Alice Beistle)에게 구혼할 당시에 그려졌으므로 로스코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림이다. 그것은 로스코 부부의 상징적인 초상화 일 수도 있다. 이 그림에는 세 명의 사람이 해변 같은 낮은 수평선을 배경으로 띠 모양의 구성 속에 줄지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은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완성감의 형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개의 수평적 사각의 분할은 로스코의 성숙한 양식을 예감케 한다.<sup>31)</sup>

그림에 주로 등장하는 노랑은 모든 색채 중 가장 밝고 주목성이 가장 강한 색으로 주로 태양, 행복, 영광, 쾌활 등을 상징하며 미래의 희망과 총명함을 암시한다. 또한 노랑은 삶의 즐거움과 에너지를 주는 색으로서 ‘노랑은 빛에 더욱더 가까운 색채다’고 괴테가 말한 것처럼 노랑과 같은 밝은 색을 갖고 싶을 때는 마음속에 빛의 밝음과 따뜻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노랑의 부정적인 상징도 있겠지만 작품에 나타난 노랑은 로스코의 아내 메리에 대한 사랑과 어두운 과거의 배경을 뒤로하고 미래의 희망을 암시 하는듯하다.

---

31)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회화연구 = (A) study of Mark Rothko's painting  
원현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p.61

셋째, 로스코에 있어서 색채의 구조적 역할은 색채와 형태를 같은 차원의 것을 의미하였고, 특별한 외형 대신에 인간 경험과 감정을 모델로서 사용할 것을 원했다는 것이다.

1949년도 작품인 <Untitled>(도판12)에서는 이전 작품들의 문제점을 해결한 색면추상 양식의 완성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수직으로 화면 내에서 수평의 형태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더욱 단순화된 형태들과 색채는 화면 내에 용해되어 단일화면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점은 색채가 이전의 작품들에서처럼 형태의 종속물로서가 아닌 화면을 이루는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색채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형태들을 결정적으로 확대하여 색채와 형태를 같은 차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뜻한다.<sup>32)</sup>

이 작품은 선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높은 색조의 불규칙적인 색면이 화면을 구축하여 이전 작품의 문제점을 해결한 특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화면 위에 전진하면서도 후진하는 듯 한 색면들을 단일 화면으로 유지시킴으로서 로스코의 천재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데 수직의 화면 내에서 수평의 형태들이 자리 잡고 있고, 더욱 단순화된 형태들의 색채는 화면 내에서 용해되어 단일 화면으로 보이게 된다. 로스코에 있어서 색채의 구조적 역할은 색채와 형태를 같은 차원의 것을 의미한다. 즉 색채는 몇 년 전처럼 풍경을暗示하지도 않았고, 형태의 종속물도 아닌 형태와 색채와의 관계는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기 위해 형태를 확대시킴으로서 색채=형태가 되었다.<sup>33)</sup>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로스코의 그림들의 사각형들은 분명한 특질들을 지니고 있고, 관람자들은 또 그것들의 감정적인 측면들을 파악할 수

---

32)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3 p.43

33) 抽象表現主義 畫家 마크 로드코(Mark Rothko)에 관한 研究 =(A) Study on Abstract Expressionist Mark Rothko 저자 안대현 p. 69

도 있다. 사각형들 중 어떤 것은 투명하고, 얇고 부서지기 쉽고, 약한 반면, 다른 것들은 단단하고 불투명하고 불투과적으로 보인다. 로스코는 특별한 외형 대신에, 인간 경험과 감정을 모델로서 사용할 것을 원했다. 그리고 그는 “내적 자아라는 인간의 새로운 지식과 의식을 위한 회화적 장비”에 관해서 썼다. 이러한 내적 자아에 대한 그의 주장은 5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34)

1962년 1번가 1485번지의 새로운 작업실로 옮긴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의뢰한 벽화작업을 시작했다. 봄에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로스코의 1962년도 작품인 하버드대학의 벽화는(도판13) 더욱 걱정적이고 거칠며 거대한 형태와 어두운 색채는 침묵과 정지의 느낌으로 제작되었는데 두 파트로 걸쳐 되어있는 5점의 거대한 패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각색 모양의 기둥 형태와 상인방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둥형태의 상단부와 하단부에는 섬광 같은 좁은 띠가 맞닿아 있다. 이 작품의 바탕은 그가 좋아하는 짙은 자주색이지만 검정처럼 보이는 짙은 황청색과 노란색의 기둥모양의 형태들이 상호 간섭작용을 일으켜 짙은 자주색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벽화는 하버드로 보내지기 직전인 1963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는데 전시장의 분위기는 공적인 분위기를 성역화한 느낌이었다.35)

넷째, 우울증, 대동맥 이상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

34)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Dark painting에 내재된 비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gic Elements in 'Dark Painting' of Mark Rothko  
김민경,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9] p. 53

35)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회화연구 = (A) study of Mark Rothko's painting  
원현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p. 62

했던 60년대 말기에 로스코의 작품에서 나타난 색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먼저는 노랑, 빨강, 주황 등 채도가 높은 밝은 색조이다.

1968년 4월-5월 대동맥 이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3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의사는 로스코에게 높이 1미터가 넘는 그림은 그리지 말 것을 권유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병으로 의기소침한 환자들은 주로 채도가 낮은 검정색을 좋아하거나 색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보고에 반해, 또 다른 연구를 본다면 그들은 밝고, 채도가 짙은 색을 좋아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양 결론이 색이 흥분제가 될 수도 있고 내면 상태의 반영뿐만 아니라 흥분과 울적함의 부족을 메꿀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또한 의기소침한 환자의 밝은 색에 대한 소호는 항상성(생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의 표현일 수도 있다. 또 다른 테스트는 Compton의 Compton fabric Preference Test이다. Compton은 환자의 신체의 개념, 경계의 모습, 경계의 침투등과 그리고 의류선호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입원중인 일단의 여성 환자들의 직물 및 디자인 선호를 시험하였다. 이 결과 정신 및 감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신체 모습을 강한 색 바탕의 대비와 보다 밝고 높은 색의 채도의 직물로서 자신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색과 패턴의 '강함'에 의해 약한 신체가 외부로부터 덜 상처받을 수 있도록 느끼는 것이다. 36)

이러한 연구에서처럼 대동맥이상이라는 육체적 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작가 로스코는 <도판 14>에서 보여 지는 채도가 높은 노랑과 주

---

36) 소아병원에 있어서 색채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장주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4] p.49

황의 밝은 색선호로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 그것을 탈피하려는, 즉 자신을 현실에서 보호하려는 잠재적인 생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검정색, 흰색, 회색 등 채도가 낮은 무채색계열의 색조이다.

1969년 엘리스와 별거함으로써 봄에는 ‘어두운 그림’작업(검정, 회색, 갈색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 연작)이 시작 되었다.(도판15)(도판16)(도판17) 1960년대 후반 그의 작품은 대체로 어두워졌는데, 말기 작에는 화면을 수평선으로 양분되는 등 그 구성이 더욱 단조로워지고 무거움과 우울함의 정조가 배어 있다. 우울증이 악화되던 작가의 당시 심적 상태를 반영하는 듯하다.

고뇌와 절망에 의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로스코에게 있어서 그의 회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으로 부터 절망을 드러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잠재하고 있어서 암흑을 꿰뚫고 어둠을 사라지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로스코의 희미한 빛은 그에게 있어서의 희망의 변향을 나타내 주었다.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과 완전한 고정된 순간에도 홀로 서있는 수밖에 없는 고독한 인간의 표현은 희미한 빛을 통해 나타난다. 희미하고 어두운 회색빛의 표현은 갑자기 자살할 로스코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하다.<sup>37)</sup>

로스코의 작품에서의 검정색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때로 주조색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초기는 주로 다른 색을 강조하거나 상쇄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검정색 자체의 분위기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

37) 회화에 나타난 정신적 표현으로서의 빛에 관한 고찰 :렘브란트와 로스코 회화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2000. 8 p.52

그러나 후기에는 그의 색채들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검정색이 그 자체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주조색으로 등장하였고 검정색의 어두움과 승고함의 표현력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구성은 더욱 엄격해지고 정적이었다.<sup>38)</sup>

그의 생애 중 말년에는 교회 내부화를 그린다. 8각형의 실내를 둘러싸는 14점의 작품은 색채가 보이는 미묘한 변조에 의해 관객으로 하여금 형이상학적인 관조의 경지에 빠지게 된다. 이 시기부터 색채는 점점 어두워져서 회색과 밤색이 주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신경성 우울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Eric P.Mosse에 의하면 고독한 사람과 의기소침한 사람은 완전한 검정색을 통해 그들 자신을 드러내어 놓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색과 우울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기소침한 우울증 환자들은 색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이 여러 연구에 의해 모두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다른 몇몇 연구를 보면 의기소침한 사람은 채도가 낮은 검정색을 좋아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생각해 보면 색채를 통해 감상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로스코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은 그가 생전에 바랐던 신념일 것이다. 그 신념은 자신의 그림이 미적인 쾌감과 색채의 깊이감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현하려는 것이었다.

---

38)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회화연구 = (A) study of Mark Rothko's painting  
원현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p.45

###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마크 로스코와 색채심리라는 단어를 종합하여 유추해 볼 때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색들은 그가 살아온 생애와 처한 상황을 보여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품에 등장하는 색채와 그 색이 가지는 심리적 상징성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마크 로스코에게 있어서 작품이란 결국 소통이었으며, 회화적 언어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작품을 통해 인간을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이야기하려는 듯 했다. 그의 우울했던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극적 인간조건과 초월의 의지 사이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며 자신의 한계성을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사이에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의 부단한 열망은 그의 색채 표현을 통해서 실현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로스코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심리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1950년대 이후 색채는 그의 작품의 본질이 되고, 그는 색채를 단순히 회화적 요소로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 했다가보다는 색채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전제한 상징성에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마크 로스코의 색면추상은 색채의 표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까지 이끌어 가며 변화와 불변성이라는 이중성이 본질인 회화를 지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색면추상의 가장 의미 있는 본질이라 하겠다. 이러한 색면추상은 회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원칙상 모든 재현적 형태를 거부하는 무의식의 자동기술법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우울증, 대동맥 이상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60년대 말기에 로스코의 작품에서 나타난 색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먼저는 노랑, 빨강, 주황 등 채도가 높은 밝은 색조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병으로 의기소침한 환자들은 주로 채도가 낮은 검정색을 좋아하거나 색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보고에 반해, 그들은 밝고 채도가 높은 색을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양결론이 색이 흥분제가 될 수도 있고 내면 상태의 반영뿐만 아니라 흥분과 울적함의 부족을 메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강한색 바탕의 대비와 밝고 채도가 높은 색으로서 자신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색의 '강함'에 의해 약한 신체가 외부로부터 덜 상처받을 수 있도록 느끼는 것이다. 로스코는 그의 내면 깊은 곳의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과 고독함을 이 색조들로 메우거나 또는 항상성(생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의 표현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검정색, 흰색, 회색 등 채도가 낮은 무채색계열의 색조이다. Eric P. Moss에 의하면 고독한 사람과 의기소침한 사람은 완전한 검정색을 통해 그들 자신을 드러내어 놓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색과 우울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기소침한 우울증 환자들은 색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이 여러 연구에 의해 모두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로스코의 말년의 작품에 연속해서 등장하는 검정색을 보며 그의 고뇌와 절망에 의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삶과 죽음을 읽을 수 있었다.

넷째,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완곡히 대비시키거나 반대의 색을 대비시키는데 있었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검정색과 빨강색의 대비되는 배색은 로스코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여 감정적인 폭발을 불러일으키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상태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주황, 빨강 등 따뜻한 색의 계열과 파랑색과 같은 차가운 색의 계

열을 대비시켜 대조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었다. 대표적으로 <마티스에  
게 경의를>에서는 주황, 빨강 등은 종교의 제복을 암시하는 듯 하며,  
파랑은 물리적으로 보여서 대조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었다. 이것은 마치  
그의 작품이 실재와 비실재, 물리적인 것과 감각적·정신적 중간지대에서  
존재하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색채가 강렬한 회화수단의 환원된 양식으로서 절대적이기를 바  
라는 로스코는 색채표현에 주력하였고 감동적인 색채를 화면에 표출하  
기 위해 무의식의 영역을 포함하여 의식적 변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 작가 연보

- 1903 마르쿠스 로트코비치가 9월 25일 러시아의 드빈스크에서 태어남.
- 1910 아버지 로트코비치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에 정착함.
- 1913 마르쿠스와 어머니, 누이가 미국으로 이주함.
- 1925 예술학생연맹(ASL)에서 맥스 웨버와 함께 회화를 공부함. 웨버의 영향을 받아 표현주의 양식으로 캔버스와 종이에 그림을 그림.
- 1929 브루클린의 유대인 센터 아카데미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함.
- 1932 밀턴 에이버리와 아돌프 고틀리브를 만나 친구가 됨. 에디스 사차와 결혼.
- 1933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 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개최. 센터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드로잉과 수채화를 제자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함.
- 1935 독립미술가 집단 '더 텐'을 공동 창립함. 이 집단이 해체되는 1940년 까지 '더 텐'과만 작품을 전시함.
- 1936 뉴욕 공공사업촉진국(WPA)의 회화부서에서 일함.
- 1940 이때부터 마크로스코란 이름만 사용함.
- 1941 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주제로 그림을 그림.
- 1944 추상, 초현실주의 양식으로 작업.  
에디스 사차와 이혼.
- 1945 메리 엘리스('멜')비스틀과 재혼.
- 1947 '다형(多形)'과 더불어 작품이 점점 더 추상화하다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로스코 후기 작품의 특징인 직사각형의 색면 구성으

- 로 발전함. 뉴욕의 베티 파슨스 화랑에서 개인전.
- 1948 뉴욕 휘트니 미술관의 연례전시 ‘현대 미국의 조각, 수채화, 드로잉’전에 참가함.
- 1949 캘리포니아 미술학교에서 회화를 가르치고 현대미술에 관한 강의를 맡음. 이후 그의 작품 제목은 번호와 제작 연도만 작성됨.
- 1950 유럽으로 향해 여행.
- 1951 브루클린 대학의 드로잉 교수가 됨.
- 1952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유명한 ‘15인의 미국인’전에 참가함.
- 1954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전시회.
- 1955 뉴욕 시드니 재니스 화랑에서 개인전.
- 1958 뉴욕 시그렘 빌딩의 벽화 제작을 의뢰받음.
- 1959 유럽여행. 뉴욕으로 돌아와 벽화를 전시할 시그렘 빌딩의 레스토랑을 방문함. 공간의 위압적 분위기에 반감을 느껴 계약을 철회함.
- 1961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홀요크 센터의 식당을 장식할 벽화 제작을 의뢰 받음.
- 1964 존 앤드 도미니크 드 메닐 미술관으로부터 휴스턴에 있는 새 예배당 기념벽화의 제작을 의뢰받음.
- 1966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유럽을 여행함.
- 1967 버클리의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강의함.
- 1969 멜과 별거함. ‘어두운 그림’ 작업 시작.  
예일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음.
- 1970 2월 25일 뉴욕에서 자살함.<sup>39)</sup>

---

39) 이상만, <포트폴리오 Mark Rothko>, 마로니에북스 2003 p.32

## 참고문헌

1. 김광우 <폴록과 친구들> 미술문화 1997
2. 데브라 브리커 발켄 지음, 정무정 옮김 <추상표현주의> 열화당 2006
3. 마크 로스코 지음 , 크리스토퍼 로스코 편집 , 김순희 옮김 <Mark Rothko 예술가의 리얼리티> 다빈치 , 2007
4. 멜 구딩 지음, 정무정 옮김 <추상미술> 열화당 2003
5. 스에나가 타미오, 박필임 옮김 <색채심리> 예경, 2001
6. 이상만 <포트폴리오 Mark Rothko>, 마로니에북스 2003
7. 姜希京, 20세기 전쟁화에 나타난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全北大學校 教育大學院 2005
8. 구영주, 마크 로드코(Mark Rothko)의 作品世界研究  
韓南大學校 社會文化科學大學院 2005
9. 김미경, 구스타프 클림트의 인물화 색채심리 분석 연구  
원광대학교, 예술치료학과 2005
10. 김민경, 마크 로드코(Mark Rothko)의 Dark painting에 내재된 비극성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9
11. 김상열, 마크 로드코(MARK ROTHKO) 색면 추상(COLOR - FIELD PAINTING)의 조형적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2002
12. 김희성, 色面抽象의 色彩表現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13. 김현성, 색채를 이용한 대상의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4. 나혜경,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色面抽象의 理念과 特性 研究  
全北大學校 2001
15. 박지원, 마크 로스코 색면추상의 내재적 정신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4

16. 안대현, 抽象表現主義 畫家 마크 로드코(Mark Rothko)에 關한 研究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2000
17. 양지영,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보색배색의 색채 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18. 원미란, 色彩와 象徴性의 內的 表現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1993
19. 원현경, 마크 로드코(MARK ROTHKO)의 회화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20. 장주미, 소아병원에 있어서 색채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4
21. 차복순, 로드코(M. Rothko) 회화의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2. 최선, 회화에 나타난 정신적 표현으로서의 빛에 관한 고찰 :렘브란트와 로드코 회화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순수미술학과  
2000
23. Jain Malkin<The Design of Medical and Dental Facilities.>1982
24. 삼성 리움 미술관 [www.leeum.org](http://www.leeum.org)
25. Hart & color 색채학교 <http://www.h-c.co.kr/>

## ABSTRACT

The color psychological research which appears in the work  
of the Mark Rothko

kang, kyoung in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color is the research regarding the color which appears in the work of the Mark Rothko(1903-1970) which it thinks with the pursuit regarding the unconsciousness which is after the sentimental system of the human being. The color from conversation the feces was done as a favor the sentiment of the human being actually and, the soul and the flesh of the artists in color inside and color with an art it committed it sublimated. Abstract expressionism and color it leads and if it hints ultimate meaning of the human being conversational form color, developmental agony of abstraction it led and it showed territory of U conversation it comes true a pure characteristic,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and an autonomous characteristic as it opened a time vision and the conversational world which is abundant with moulding characteristic. Namely, the color simply to pass over the reappearance against outside and to put out and to expression and to be possible the enemy there to be variation to do, will apply a subjective sentiment with medium of expression. Is like this the color as color form is substituting the moulding element of the line or form even from the work of the Rothko and it expresses a sentiment as the moulding

element which is most for appropriate there to be to his work, is important role. The research result regarding color psychological it appears in the work of like this Rothko, the possibility of hanging down the next some branch conclusion it was.

First, 1950's after color becomes the essence of his work, him color as conversational element accomplishes the artificial flower simply and the previous report which it selects with the means for meaning which the color form which wears out is specific it put prerequisite one symbol frost meaning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e thing it w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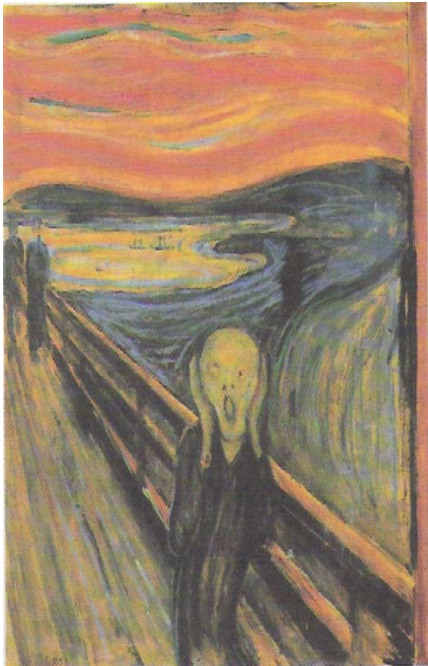
If color of the second, Rothko the abstraction the effect of the automatism of the unconsciousness which refuses all reappear form and disregards the fixed idea against a conversation completely and at principle will be received a thing the possibility of knowing it was.

Third, melancholia, above the aorta sends the rough time with back multi branch disease and the possibility of trying to classify the color which in 60's final period appears from the work of the Rothko with two branches a lot it was. Distant I scull Rang, red and orange color back chroma am high and it is a hue which dawns. Melancholia it was sick and spirit the patients who get depressed chroma liked a low-end official approval color mainly in the bottle or there was not interest regarding a color almost to report to be obvious, like this people dawned with preparation of strong color character, as the color where the chroma is high strengthens oneself discovered is having a tendency. The Rothko will be cut and him it puts out and the place in lonely is these hues with fight with oneself it will fill up or will not be the expression of homeostasis (maintains organism undergarment balance tendency). The possibility of trying to guess it was.

Official approval color, huyn the color and gray back chroma are hue of low-end nothing coloring system in afterwords. The Eric according to the P.Moss the person and the spirit which are lonely the person who gets depressed leads and their confidences and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fact that it puts the official approval color which is

complete it distinguishes it said that U there is. There was to relationship with color and melancholia and spirit the melancholia patients who get depressed appeared with the result where the interest regarding a color almost nil by a multi research all is same. It continues in the work of later years of the Rothko and appears and the official approval color which sees by his suffering and a despair with the life which all things abandons it dies the possibility of reading it was. Fourth, with warm color it prepares a as cold as ice color and the place where it prepares the color of opposition it was. Frequently appears the color scheme which is prepared the craving which pursues the relationship which the Rothko is intimate calls forth a sentimental explosion too much strongly in the work or to receive the stress and the possibility of seeing in easy condition it is and as the form which the conversational means where the color is intense is reduced the Rothko which wishes an absolute convenience manifests the impressed color to concentrate in color expression in the screen the territory of the hazard unconsciousness which a conscious change and to include to pur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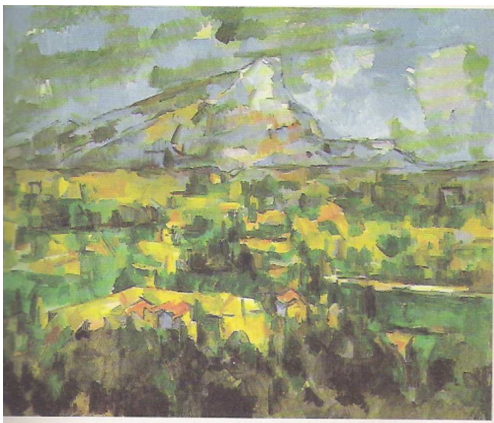
<참고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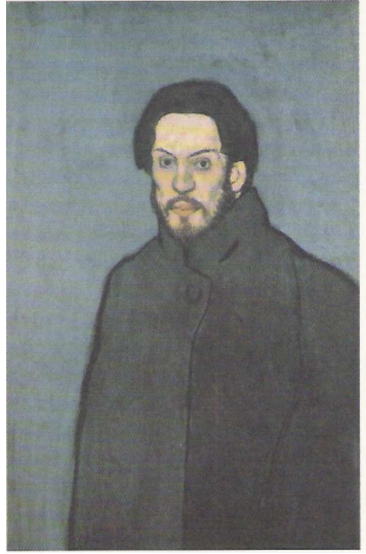
<도판 1> 뭉크 <절규>1893



<도판 2> 반 고흐 <침실>1888



<도판 3> 세잔 <생 빅투아르 산> 1902~4



<도판 4> 피카소 <자화상>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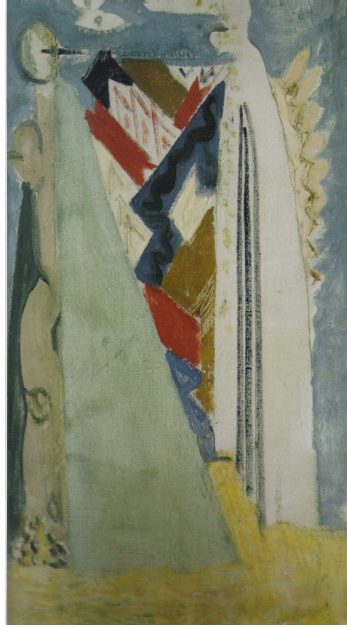
<도판 5> 피카소 <게르니카>1937



<도판 6> Mark Rothko <마티스에 대한 경의> 1954



<도판7> Mark Rothko <Untitled>1943



<도판8> Mark Rothko <The Omen> 1943



<도판 9> Mark Rothko 1962



<도판 10> Mark Rothko 1970



<도판 11> Mark Rothko<Slow Swirl at the Edge of the sea> 1944



<도판 12>

Mark Rothko 무제<하양과 빨강 위의 바이올렛, 검정, 오렌지, 노랑>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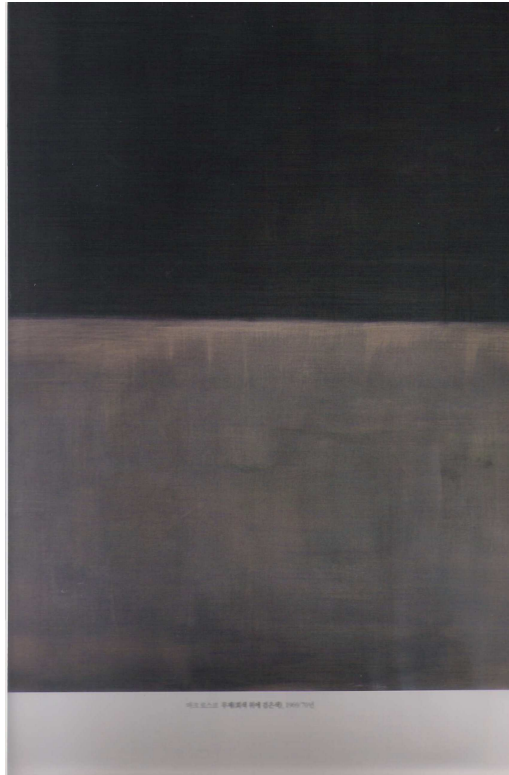


<도판 13>

Mark Rothko 패널1<하버드 3면 벽화> 1962



<도판 14> Mark Rothko <무제> 1968



<도판 15> Mark Rothko 무제<회색 위에 검은색> 1969/70



<도판 16> Mark Rothko 1969



<도판 17> Mark Rothko 1969